

# ALEC SOTH

16 July - 29 August 2009



Falls 26, Chromogenic print, 61x76.2cm, 2005

미국 사진작가 알렉 소스(40)의 개인전이 8월29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이엠아트에서 열린다. 소스는 미국 사진계의 전통을 잇는 작가로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감각적인 감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사진 작가모임인 '매그넘 포토스'의 정회원이 됐다. 소스는 사실 전달의 특성을 가진 다큐멘터리 사진과 허구의 대상을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입해 시각화하는 매체예술의 경계 속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박찬욱 감독(46)이 영화 '박쥐'를 만들면서 소스의 사진을 참조했다고 밝혀 유명해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이아가라' 시리즈와 '도그 데이즈, 보고타(Dog Days, Bogota)'시리즈를 선보인다. '나이아가라' 시리즈는 2년 넘게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을 관찰하며 그곳을 방문하거나 상주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로맨스의 순간을 담아냈다. '도그 데이즈, 보고타' 시리즈는 콜롬비아에서 입양한 딸에게 훗날 작은 사진집을 선물하고자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일상 풍경을 담아내면서 기획됐다. 보고타의 일상 풍경에 딸을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이 녹아들어가 있다.

소스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심오한 미는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을 시적으로 표현한 사진예술의 새로운 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이재훈기자